



I 이달의 소식

1. 모임안내

1쪽

II 내용

1. 노아 (12) 비전을 가진 사람 - 노아 - 이종헌

2쪽

2. 성경 그리고 창조와 수학 (12) 본론 - 옥봉흠

3쪽

3. The BIBLE Comes Alive(10) by Clifford Wilson - 이종헌 역

6쪽

4. 창조단상 (13) 생물의 생존능력 - 박종환

11쪽

인 사 말

벌써 11월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할 준비를 하는 달입니다. 그러나 남은 두 달은 과거를 위한 달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달도 됩니다. 그것은 인생의 황혼기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제는 50이 되었으니까 과거를 정리하며 살자는 생각이십니까? 홍수 이전의 노아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방주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이후의 노아에게도 비전은 필요했습니다. 그의 남은 삶에 대한 비전 뿐 아니라 이생의 삶 이후에 대해서도...

-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장 이종헌 올림



1. 11월 정기모임 안내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에서는 매월 정기 스터디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과학 자료를 발굴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보다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며, 상호교제를 통해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월(11월)모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2003년 11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

장소: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사무실(동일교회 세계복음센터 103호)

내용: "Bible Comes Alive(성경고고학 연구)"

발표: 이종헌

약도: 문의전화 (053)743-6058





비전을 가진 사람 - 노아

노아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의 날은 백이십년이 되리라 ...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라는 히브리서 저자의 평가처럼,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은 이후에 방주에서의 생활을 위해 120년간 준비를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방주를 만들기 위해 동원된 인부들을 다룰 때도 그들을 잘 다독거리며 작업 감독을 하였고, 방주에서 홍수의 기간 동안 먹을 음식을 심사숙고하여 준비했으며, 동물들의 갖가지 특성을 파악하여 방주 안에서 그들을 돌볼 준비를 하였고, 홍수가 그친 이후에는 세상에 빙하기가 찾아오리라는 예상을 하는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더운 날에도 겨울옷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데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뢰는 노아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는 표현처럼, 그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단 노아에게만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아담에게 찾아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쑥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놈, 왜 그 열매를 먹었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숨은 것을 아는 척 하지 않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하고 부드럽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아담으로부터 자기 죄의 상태에 대한 인식을 하도록 유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지어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해 욕박지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아담에게 상담가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노아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이 느낀 가장 큰 고통은 숨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은 아무런 감사 없이 숨쉬고 있지만, 어깨를 다쳤을 때, 갈비뼈를 다쳤을 때, 다리를 다쳤을 때 등에서 공통적으로 아픈 것은 숨쉬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볼 때,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상태에서 온 몸의 체중이 아래로 쏠리는 경우 숨쉬기가 가장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기꺼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바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어 그의 아내 하와를 만드신 것은 예수님이 창에 갈비뼈를 찍혀서 그 분이 신부인 교회를 얻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값지게 생각하시는지는 천국에 대한 비유로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예수님은 진주로 예표되는 교회를 사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습니다. 즉,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값 대신 짓기도록 내어 맡기셨습니다.

노아가 가졌던 비전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었듯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보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닫는다면, 그분을 위한 비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자의 형편에 말도록 하나님이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회와 환경을 통해서 ... **창조**

성경 그리고 창조와 수학 (12) 본론 11. 신앙의 수학자들
옥봉흠 (산업정보대 교수, 성동교회 장로)

신앙의 수학자들

역사적으로 볼 때 유명한 과학자들과 수학자들 중에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수학이나 과학에서 기독교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러나 수학자, 과학자의 인격 속에서는 기독교 신앙과 수학적 진리가 모순 없이 공존한다. 따라서 본인은 그 공존 속에서 살아간 신앙의 수학자들을 간략하게 소개함으로써 기독교와 수학에 한 걸음 더 접근 시키고자 한다. (신앙인의 측면에서 신부도 포함되어 있다.)

● 로저 베이컨(Roger Bacon 1214~1292 AD)

프란시스코파의 신부이며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 물리학과 화학을 연구, 자연 철학서 저술, “자연과학은 주의 깊은 관찰과 실험적 기초가 필요하며 천문학과 물리학은 수학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하였다.

● 니코라스 코페르니쿠스(Nicolaes Copernicus, 1473~1543 AD)

폴란드의 천문학자→신학자→철학자→수학자→의사, 후생에 태양계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 전생을 바쳤다. 마침내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저서를 통해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발표했다. 그러나 ‘천동설’을 믿고 있던 당시의 종교계와 과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았다. 그 후에 갈릴레이와 케플러에 의해 빛을 보게 되었다.

●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vinci, 1452~1519 AD)

이탈리아 플로렌스와 피사라는 도시의 중간쯤 되는 곳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 집안사정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조부모 손에서 자랐으며 7세 때에 교회학교에 입학하여 경건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었다. 천재적 물리학자→해부학자→미술가→건축가→수학자로 역학연구에 전념하였으며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등 수많은 걸작을 남김으로 르네상스 문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하였으며, “오오 학자들이여 수학을 배워라 그리고 기초 없이 건설하지 말라” “수학자가 아닌 자는 나의 원리를 읽을 수 없다” 등의 명언을 남겼다.

● 요한네스 케플러(Johannes Kepler, 1571~1630 AD)

뛰어난 수학자요 천문학자였고 현대 천문학의 기초를 닦은 요한네스 케플러는 독일 베일 지방의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며 한 때 기독교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을 공부하면서 천체와 별들의 운행에 관한 공부에도 몰두한 특별한 사람이었다.

1600년 케플러는 덴마크의 유명한 크리스천 천문학자였던 티코 브라헤(1546~1601)와 만나면서 본격적인 천문학자가 되었다. 브라헤가 임종하면서 30세 된 청년 과학자에게 자신의 천문학적 자료를 모두 인계하고 자신이 연구해 온 일들을 완성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임종했으며, 그리고 그가 맡았던 국왕 루돌프 황제의 수학담당관으로 임명되어 연구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드디어 케플러는 유명한 “케플러의 법칙”을 발견하여, 최초로 코페르니쿠스의 가설을 수학적으로 밝혔으며, 아이작 뉴턴은 그의 유명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케플러의 제3법칙으로부터 이끌어 낸 것이다.

케플러는 그의 저서 “우주의 신비”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을 우연히 내가 발견하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만일 코페르니쿠스가 말한 것이 참이라면 내가 그것을 입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했다. 그는 또 은사인 마에스트린 교수에게 위대한 발견을 한 후 이렇게 편지를 쓰기도 하였다. “자연이라는 책 속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저는 제가 발견한 이 사실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때 신학자가 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문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시19:1)” 이 말 씀은 케플러의 천문학연구에 있어 일생의 중심 사상이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연대상의 문제에도 노력을 기울여 라틴 달력에 오류가 있음을 밝혀내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기원전 4년에 탄생하였음을 주장하여 누가복음의 기록이 정확함을 변호하였다. 1618년 “우주의 조화”라는 논문을 완성하였을 때 이것을 그는 “신성한 설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찬송”이라고 고백했다.

케플러는 참으로 위대한 과학자였을 뿐 아니라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다.

● 파스칼(Blaise Pascal 1623~1662 AD)

프랑스 남부 오베르뉴의 클레몽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다. 유명한 수학자이며, 과학의 천재였으며, 뛰어난 문학적 조예를 겸비한 문학가이기도 하였다.

12세 때 기하학에 관심을 갖고 독자적으로 공부하여 「유클리드의 제1권 제32명제」를 증명하였고 16세 때 평면기하학의 “파스칼의 정리”를 발표하였으며, 30세에 “유체역학에서 파스칼의 원리”등 그 외 많은 발명품도 내 놓았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도 가장 가냘픈 한 줄기의 갈대와도 같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도 세계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한 유명한 명구(名句)를 담은 ‘팡세’의 저자라는 것은 잘 알면서, 과학사에서 누구보다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파스칼과 동일인이라는 것은 너무도 쉽게 관과해 버린다.

10대의 어린 나이에 촉망받는 수학자로 주목받기 시작한 파스칼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에 관한 믿음도 함께 자라고 있었다. “내가 연구하는 일들이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그분이 주시는 능력만큼만 밀고 나가면 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고백인가!

파스칼은 “자연은 창조주 하나님의 뛰어난 솜씨”라고 믿었으며 그는 양피에 자기 신앙체험서를 써서 외투 안쪽에 꿰매어 늘 입고 다녔다 그가 죽은 다음에야 발견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감격, 기쁨, 평안함.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 -종락-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당신을 알았네 -종락-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는 떠나 있었네.

나는 그분을 떠나 있었고, 부인하였네.

그리고는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았네, 이제는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나는 당신을 잊지 아니 하리이다.

아멘.

“인간에게는 두 부류만이 존재한다. 하나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로운 사람이며, 다른 하나는 자기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다.

(파스칼의 「팡세」 중에서)

● 뉴우톤(Issac Newton, 1642~1724)

1642년 유럽에서는 위대한 과학자 한 분이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난 같은 해 성탄절에 다른 과학자 하나가 태어났다. 세상을 떠난 과학자는 망원경을 발명한 갈릴레이였으며, 태어난 과학자는 아이작 뉴우톤이었다.

경건한 청교도이며 칼빈주의자로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한 신학자, 물리학자, 천문학자요 미분적분학의 창시자인 수학자이면서, 그는 생전에 과학보다도 신학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다고 한다.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에서 우주의 경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했으며, 「만유인력의 법칙」 「빛의 스펙트럼 발견」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주해」를 남겼으며, 당시에 영국 천문학자인 할레이가 기독교를 비난한다는 소식을 듣고 뉴우톤은 그에게 “할레이, 자네가 천문학과 수학을 말할 때는 내가 들어 주지. 그러나 자네가 기독교를 말할 때는 안 듣겠네. 자네는 그것을 시험도 안 해보고 그러지만 나는 시험을 해 본 결과 참인 것을 알고 있네(그의 깊은 신앙 체험이기도 하다.)”

● 코오시(Cauchy, 1789~1857)

신자로서 프랑스의 대수학자이며 극한 개념에 도전하여 성공하였다.

※ 그 외에 현대 수학의 개척자 오일러(1707~1783 스위스)와 독일 수학자인 바일(Hermann Weyl, 1885~1955), 수학자이며 천문학자인 바로우(Issac Barrow), 수학자이며 근대 화학의 아버지 로버트 보일러(1627~1691), 미적분을 발견한 라이프니치(1646~1716), 등등 수없이 많이 있으며 수학자 이외에 물리 화학 생물학자 중에도 신앙의 인물이 많이 있으나 여기서는 수학자만 소개하고 그 외에는 생략 하고자 한다. **참조**

제3절 아브라함: 그의 배경과 그의 가족

우르/Ur의 학교



고대 우르의 사회생활에서 소년들은 학교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아브라함의 도시 우르에는 학교가 있었다. 그때에는 이미 글쓰기가 통상적인 기술이었다. 수천개의 점토 서판이 여러 센터에서 발견되는데, 연대가 대략 그의 시대로 추정되 된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Tell Ell-Harari(Mari)에 있는 고대 아모리인의 언덕, 고대 하투사/Hattusas(요즘의 Boghazkoy), Kish, 및 우르 자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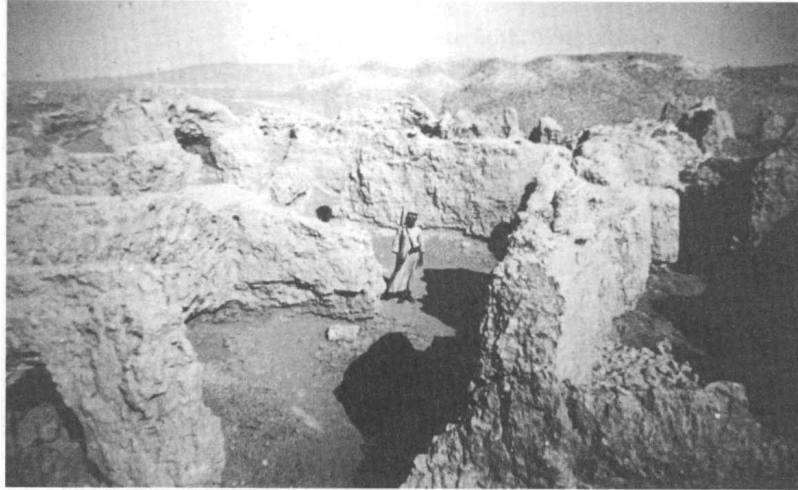
고고학적으로든 역사의 기록으로든,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모든 도시들이 지금은 알려져 있다. 그가 살던 시절에 그 도시들은 중요한 센터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후기에 가서는 그 도시들이 모두 번성하지 못했으므로, 성경 이야기의 지방색과 시기가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초기의 비평가들이 주장했듯이, 이야기할 때마다 불어나는 모닥불 가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도시 우르

Leonard Woolley 경은 8피트 깊이의 불모의 진흙아래에서 문명의 증거를 갖는, 노아 홍수로 기인한 진흙 퇴적물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는 그가 파들어간 다섯 개의 구덩이 중 두개에서만 이 증거를 발견했다. 그가 발견한 증거는 홍수로 인한 것인데, 홍수는 우르를 모두 멸망시키지 못하고 고스란히 남겨놓았다.

어떤 경우이든, 비슷한 홍수의 증거가 니네베, 에렉/Erech, Kish, Nippur, 및 Tell Farah 등의 고대 앗시리아와 바빌론에서도 발견된다. 이들 홍수는 수세기의 시간 차이가 있다: 분명히 그것들은 성경의 홍수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 모든 땅을 멸망시킨 것과 같은 홍수를 다시는 보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창세기 9:11).

창세기에서 말하는 홍수는 분명 전 세계적인 사건임을 나타낸다. 원전을 신중하게 읽으면 매우 분명하게 된다. 높은 산의 정상까지도 다 덮였었다(창세기 7:19). 만약 이것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유역에만 국한된 홍수였다면,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를 건설하는 거대한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높은 곳으로 도망가면 됐었다. 그것은 명백히 전 세계적이었으며,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멸망했다(창세기 7:21-23).



아브라함의 도시 우르

소총을 맨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고대 도시 우르의 경비원이다. 그는 자기의 이전 직업이, 이 지역의 유명한 영국인 발굴자인 Leonard Woolley 경의 인부였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르에서 나온 황금 그릇

우르에 있는 왕들의 무덤에서의 발견물들로부터, 그 도시의 장인(匠人)들이 매우 유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황금 그릇, 보석과 공예품, 황금 단도, 및 기타 황금 투구 등을 보면 기술력이 상당했다. 이 발견물들은 문명이 현저히 발달했음을 시사해준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소위 말하는 “원시인”이라는 것이 결국 그렇게 원시적이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인간은 항상 지능적이었으며, 기술 능력이 상당했다.

황금 그릇을 도금한 이 복제품들은 호주 고고학 연구소의 박물관에 있는 것이다. (나는 수년동안 그 연구소의 소장자로 있었다.) “Queen Shubad”라는 이름을 주목하라. 번역가들은 요즘 그녀를 Pu-Abi 여왕이라고 부른다.



우르의 왕의 무덤

이것들은 (이전에 Shub-Ad라고 번역했던) Pu-Abi 여왕과 Mes-Kalam-Dug 왕자의 무덤에서 발견한 황금 그릇의 복제품이다. 원본은 Leonard Woolley 경이 발굴했다.

투구에 대하여, 외부 행성으로부터 지구를 방문한 우주비행사가 써서 닳은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최근에 제기되었다. 그 논쟁에서 주장하는 것은, 고대인은 지능이 제한되어 있고 기술도 원시적이기 때문에 하찮은 인간이 그러한 투구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그림에 있는 황금 투구는 인간이 만든 공예품이며, 그 시기는 BC 2천년 이전이라고 확실히 밝혀져 있다. 우주비행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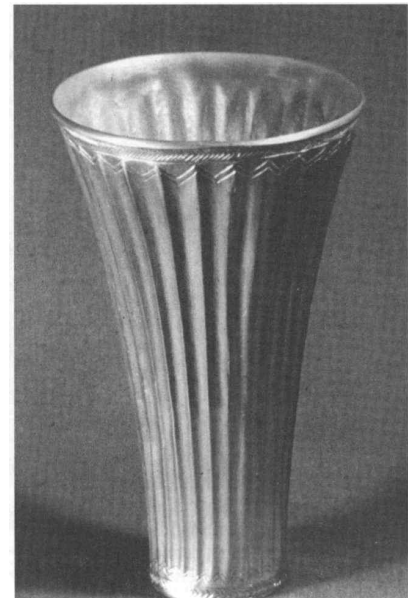
세로홈이 있는 황금 술잔

왕실의 무덤에서 황금 그릇이 발견되었다. 그러한 그릇은 “평범한” 사람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왕실의 사람이 죽으면 하인들이 장례 행렬을 따라 무덤으로 내려가서, 이 세로홈이 있는 황금 술잔과 같은 그릇에 독을 담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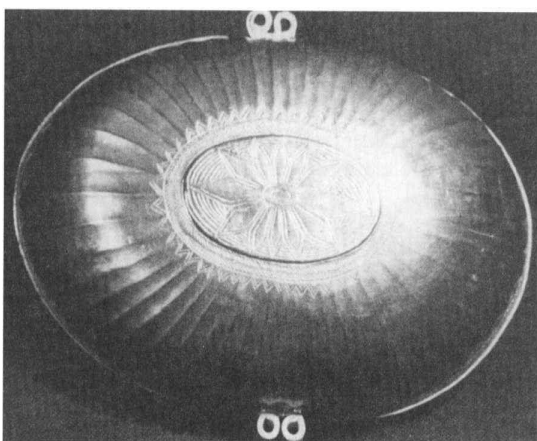
그렇게 함으로써 더 좋은 부활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물이나 새는 미래의 삶을 준비한 적이 없다. 그들은 시체를 묻은 적도 없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만이 죽음을 넘어서는 삶에 대한 개념을 갖고, 그 삶에 대해 준비하는 것을 여러 문화에서 발견한다. 우르에서는 왕이나 여왕이나 왕자가 죽을 때, 그들의 하인이 같이 죽어서 내세에서도 섬기는 삶을 계속하게 하는 것 이외에, 황금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포함된다.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죽게 될 때 더 나은 내세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신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막연한 개념을 갖고 있다.



세로홈을 가진 황금 술잔

자신들이 선기던 왕, 여왕, 또는 왕자가 죽으면 장례 행렬을 따라갔던 하인들이 이것과 같은 그릇에 독을 담아 마셨던 것으로 믿어진다. 그들은 더 나은 내세를 받을 것으로 믿었다. 오직 인간만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갖는다.



우르에서 나온 세로홈을 가진 황금 접시의 아래면

왕실의 왕자가 내세로의 여행을 떠날 때는 모든 것이 최고라야 됐다. 심지어 탁자 위에 놓이는 부분도 신중히 정교하게 만들어야 했다.

우르에서 나온 또 다른 황금 그릇

이것도 역시 우르에서 나온 황금 그릇 중의 하나이다. 이 사진에는 바닥면이 보이는데, 단순히 선반 혹은 테이블의 위에 얹히는 부분의 솜씨가 황금 그릇의 다른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만들어졌다. 우르 왕가의 왕자가 쓰는 물건은 최고로 좋은 것이어야 했다. 왕가의 무덤에서 나온 이 발견물들은 이 사람들이 대단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라고 도전받았다. 하나님은 부와 문화에 관심이 없었으며, 아브라함은 우르의 장엄함을 뒤로한 채 떠나서 순례자와 나그네가 되어, 다만 하나님 앞에서만 걸어가라는 도전을 받아들였다. 후대의 모세처럼,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존재를 선택했으며, 거짓 신들에게 바쳐진 문화의 장엄함을 택하지 않고 그것을 비난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악한 숭배가 특히 달의 신인 거짓 신 난나/Nannar와 연관이 있었으며, 모세의 경우에는 파라오 자신이 태양의 신 라/Ra의 현현이라고 여겨졌다.

우르에서 나온 황금 귀걸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라고 그의 종을 보냈을 때, 그 종은 성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창세기 24:22) 금은 보석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우르에서 이 황금 귀고리들이 발견되었는데, 아브라함 시대보다 앞선 연대가 앞선다. 크기도 성경 이야기에서 말하는 것보다 약 2배이다. 분명히 그 종이 지금처럼 큰 금 귀고리를 가지고 갔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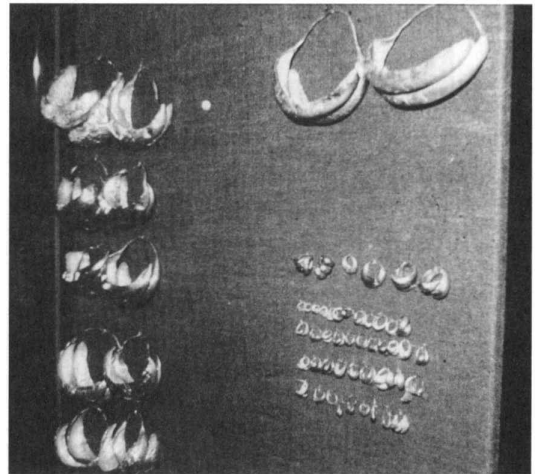
이것을 자료로 하여, 고 William Foxwell Albright 교수가 일찍이 1962년에 다음과 같이 썼다:

『지난 15년 동안에, 이 조사의 첫판이 출판됨에 따라 아브라함 이야기(창세기 12장에서 14장)의 배경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만큼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게 되었다.』

Albright 교수는 그의 초기 시절에는 회의적이였었는데, 성경 원전의 완전성에 감사할 준비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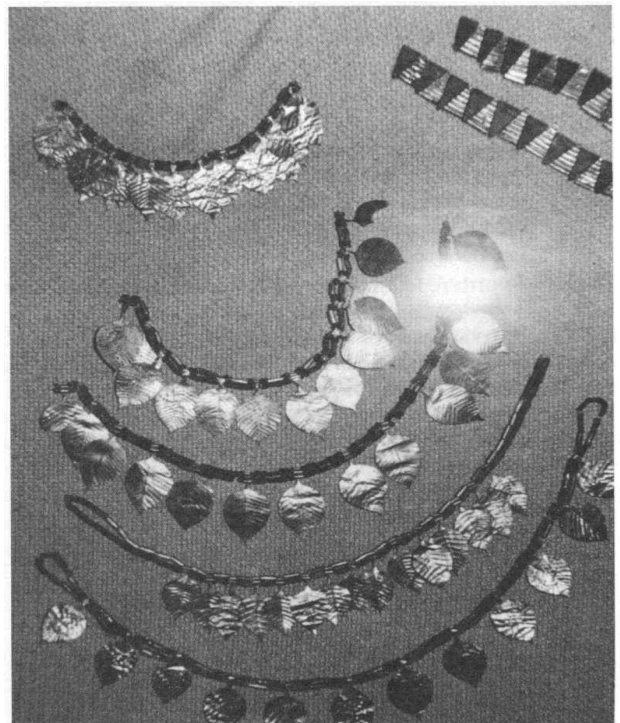
우르에서 나온 보석

이 아름다운 보석 역시 우르 왕가의 무덤에서 나왔다. 어떤 것은 아름다운 황금 일사귀도 있으며, 은과 청금석을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보석들이 있다. 매혹적인 솜씨이며, 이 경우에 그것은, 죽어서 왕실 동굴에 묻힌 Pu-Abi 여왕과 관련이 있다. 그것은,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 우르 도시에 금속 공예가 잘 발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우르에서 나온 황금 보석

비평가들은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게 이른 시기에 금귀고리를 가지고 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아브라함 시대 이전의 것인 이것들은 창세기에 기록된 것들보다 크기가 두배 이상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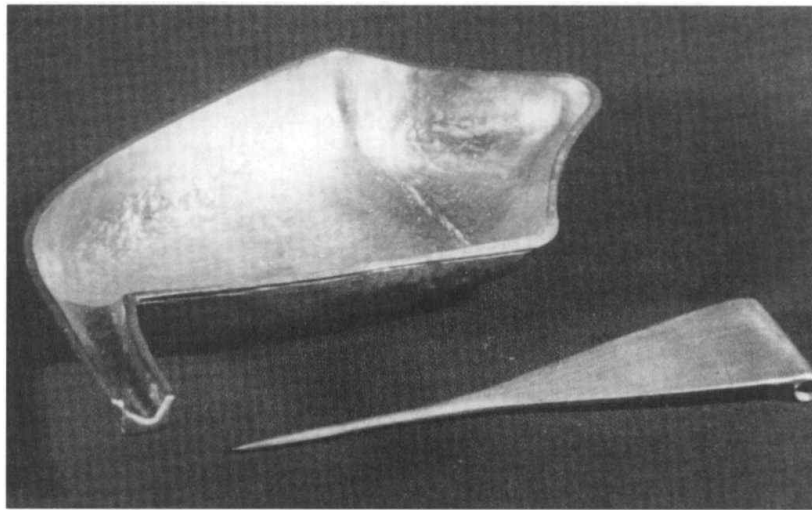
우르에서 나온 금과은 장신구

Pu-Abi 여왕의 무덤에서 많은 양의 아름다운 보석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는 금도 있었고, 은과 청금석(靑金石)도 있었다. 그것은 놀랄 만큼 “현대적”이었으며, 아브라함 시기 이전의 초기 문명에 대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것보다 훨씬 진보적인 것이었다.

이 보석은 현대의 여인들도 진가를 인정하며 높이 평가함은 물론, 대부분의 것들은 지금도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이다. 창세기의 앞 부분 장들에서 기술자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는데, 고고학적 발견물들을 보면 이보다 훨씬 앞서므로, 성경의 기록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상을 더욱 받는다. 이 목걸이들은 족장 시대 이전의 것이며, 고대 시대에서 현대 문명까지 유사한 발견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정착된 문명이 세워지자마자 사람들은 과학적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1세기 전의 많은 학자들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것보다 훨씬 앞선 것이다. 발굴자 Leonard Woolley 경은 우르 문화의 표준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수정해야만 한다고 제안했다.

기름 등과 머리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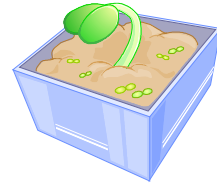
황금 기름 그릇과 머리핀

Pu-Abi 여왕은 내세의 자기 길을 볼 수 있어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황금 그릇에 기름을 채워서 빛을 분명히 가지려 했을 것이다. 황금 머리핀은 그녀 생전의 대표적인 사치품이었다.

또 다시 우르 왕가의 무덤에서, 죽은 Pu-Abi 여왕의 무덤으로부터 기름 등과 머리핀을 발견했다. 분명히 다가올 삶에 있어서, 그 길을 보여줄 빛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기름을 담을 수 있는 황금 그릇을 여왕에게 곁들였다. 그리고 그녀는 아름다운 장신구가 필요했을 것이므로, 내세의 삶에서 잘 보이기 위해 이 황금 머리핀이 또 생각날 것이다.

오직 인간만이 무덤을 넘어선 삶의 개념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 사실을 다시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름 등, 음식, 무기, 기타 이생의 삶에서 사용하던 물품들을 종종 사망한 사람들과 함께 묻었다. 사람은 끊임없이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다. 성경은 사실상 무덤을 넘어선 삶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그들을 죄들로부터 용서해 주시기 위해 자기 피를 흘리신 그분에게 나아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6)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믿어야 한다.

실용성과 아름다움이 결합되어, 심지어 까다로운 20세기 “현대”에서도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



생물의 생존능력

생물의 생존능력.... 바지락 뿐 아니고 모든 생물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생존하기 힘든 극한 상황에서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군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체에게 부여하신 생명 유지능력이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예를 두 가지만 들어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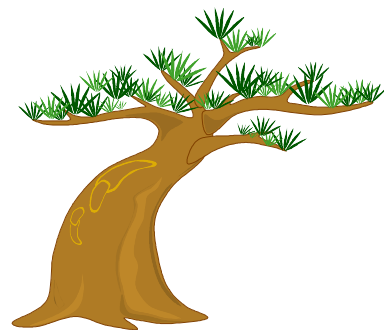
옛날 시골에서는 콩나물을 집에서 길러 먹었습니다. 그 첫 단계가 콩을 고르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썩은 콩이나 부서진 콩을 골라내었지요. 그런데 가끔 다른 콩보다 작으면서 매우 단단해서 입으로 깨물어도 부서지지 않는 콩이 있습니다(소위 말하는 '못된 콩'). 콩나물을 키울 때는 이런 콩도 골라내지요. 이런 콩은 실제로 밭에 심어도 싹이 트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콩이 왜 있을까요?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콩을 심었는데 요즘 같은 가뭄이나 홍수로 그 콩이 말라 죽었거나 썩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장해 둔 다른 콩으로 다음에 심으면 되겠지만 사람이 따로 저장해 두지 않았다면 콩은 멸종하고 말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때 이 '못된 콩'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죠. 이 '못된 콩'은 길면 7,8년 만에 싹이 틽니다. 완전히 콩 농사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늦게라도 틽워주는 것 때문에 멸종하지 않고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려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나무를 예로 더 들어 보겠습니다.

'남산 위에 저 소나무'는 바람, 서리에 불변하다고 했는데 바위 틈 속에서 어렵게 자라는 소나무는 열매인 솔방울이 더 많이 열립니다.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곳은 너무 살기 힘든 곳이다. 그러니 씨앗을 많이 뿌려야 게 중에 몇몇이라도 이 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소나무는 오히려 토양이 비옥하고 살기 좋은 곳에는 솔방울이 듽성듬성 나는 것입니다. 종족 보존의 본능도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모르긴 해도 사람에게도 모양과 방법은 다르겠지만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려움과 고통, 환난 당하는 분들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g)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부분을 누르시고, 요청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날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